

美 중심에서 K-FOOD 확산 이끈다

농식품부·aT, LA서 대규모 수출상담회 성료

미주지역 농식품 수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수출상담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미국 LA에서 2019 LA K-Food Fair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5300만 달러의 수출상담실적과 5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페어에서는 신선과일, 김치, 음료, 소스, 스낵류 등 국내 34개 수출업체와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참가한 100명의 바이어들이 만나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였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고구마말랭이'는 순수 원료간식의 붐에 힘입어

1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당노와 호습기 질환에 좋은 수국 잎 '감로차'도 50만 달러의 수출협약이 체결되었다. 통주 막걸리는 브라질 바이어가 5만 달러를, 알로에음료는 도미니카공화국 바이어가 2백50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aT는 이번 행사기간 중 미국 내 아시아식품 핵심벤더사인 Khong Guan사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주류마켓의 대표격인 크로거(Kroger)와 코스트코(Costco)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한국 농식품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K-FOOD의 대규모 수출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T 신현권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미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미국 LA에서 '2019 LA K-Food Fair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5300만 달러의 수출상담실적과 5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국 식품업계의 핫 트렌드는 식물이 기반(Plant-based)으로 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궂임없이 변화하는 수출시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

는 한편, 새로운 품목발굴에도 노력해 K-FOOD를 전 세계적으로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을 위한 HOT한 금융혜택!

농협, 농가소득 증대 위한 '행복이음농가소득 plus 예금' 재출시

농협(회장 김병원) 상호금이 2019년 2월 출시되어 뜨거운 관심 속에 판매 완료 되었던 '행복이음농가소득plus예금'을 22일부터 추가 판매한다.

영업일 15만에 판매금액 5천억원을 달성하며 판매 완료되었던 '행복이음농가소득plus예금'은 상호금융 50주년을 기념하고, 돌아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추가 판매를 실시하게 됐다.

상품 가입대상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보유 고객으로 가입 농업인 모에게 최대 3.5%p, '국가(독립 등)공공자민 가입농업인(유족포함)'에겐 우대금리 1.0%p를 더하여 최대 4.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기본금리 포함 5~6%p대 예금금리가 적용되며, 1인당 가입한도는 1천만원이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는 "행복이음농가소득plus 예금의 추가판매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해당 상품의 금융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이음농가소득plus예금'은 2017년 6월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출시한 '행복이음패키지' 내의 상품이며, '행복이음 패키지'는 2019년 6월말 현재 40조원의 판매고를 돌파하는 등 농협상호금융의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 또는 농협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정부, 'WTO 파견·의견서 제출'로 日 백색국가 제외 대응

정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일본 측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

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서 접수 절차를 거쳐 이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이해관계국으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관련 협회나 업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민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이 제한된다. 이르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24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할 것을 요청해왔다. 다만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고위급 책임자가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일본 측 대표는 아카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 다만 참석자를 회의에 앞서 미리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그만큼 이번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치품평회서 진안부귀농협 '마이담' 최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연체협회의가 주관하는 '제8회 김치품평회'에서 진안부귀농협의 김치 '마이담'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하여 우수 김치브랜드를 선정·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품평회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HACCP 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위생 분야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6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했다.

대상은 강원 평창 (주)평창후래쉬푸드

의 '올마루포기김치'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전북 진안의 부귀농협의 '마이담'과 전남 영암 (주)영인식품의 '남도미가'가 선정되었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1천만원, 최우수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각 5백만원, 우수상 각 3백만원)이 수여되며, TV홈쇼핑 입점 기회 제공 등 판촉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협업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전국대학4-H회원 참석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4-H본부와 공동으로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학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전국 대학4-H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학4-H는 농업·농촌, 환경, 생명의 가치 등을 중시하며 4-H이념을 실천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체로서, 전국 16개 대학에서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067명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사회, 경제, 농업·농촌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 대해 들여보고,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대학4-H회원 대표 15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현

실'과 '대학생이 바라본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참석자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문답식 토론회로 각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청년관련 정책 제안, 농업·농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농촌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반영하여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농촌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수 일자리 사례를 알리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하림 1본부 정문성 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마조마을 어르신들에게 중점을 맞아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촌사랑 실천에 '구슬땀'

하림, 진안군 마조마을 찾아 '1사 1촌' 활동 삼계탕 나눔·장기자랑 등 다양한 교류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진안군 정현면 마조마을에 모처럼만에 서글 서글한 미소들이 피어났다.

중복인 22일 햇볕을 막아주는 모자와 장화, 장갑까지 낀 (주)하림 임직원들이 모습은 영락없는 농사꾼이었다.

(주)하림 임직원들이 마조마을 처음 찾은 건 2016년이었다.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조마을과 1사 1촌 협약식을 갖고 매년 방문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주)하림 임직원 20여명은 양 손 가득 삼계탕을 들고 마조마을을 찾았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대접을 비롯해 발농사 일손 돕기에도 발을 걸어 볼였다. 또한 웃놀이, 투호, 보물찾기, 송어잡기,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고추밭 일을 도운 사육팀 박진언 과장은 "서투른 일손이지만 시골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농촌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하림은 마조마을이 정성껏 기른 농산물도 구매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하림 1본부장 정문성 부사장은 "땀과 정이 담긴 하림과 진안 마조마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과 마을이 상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원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